

# 새로운 시작의 떨림 전북교육 바꾸는 울림

전북학생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 내달 개원 앞두고 새출발 다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 예비위원들이 다음 달 학생의회 개원을 앞두고 한 자리에 모여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3~5일과 10~12일 두 차례에 걸쳐 전북학생수련원에서 2026년 제4기 도·지역 예비학생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4기 전북학생의회의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무주, 장수, 부안 등 8개 지역학생의회 간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한 이 워크숍에는 본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협력교사와 업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새로운 시작의 떨림이 전북교육을 바꾸는 울림으로'라는 슬로건의 워크숍은 △전북학생의회 이해 △인성 및 학생의원 소양 교육 △전북교육 현안 문제 토론 △민주시민교육 등 학생 중심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학생의원들이 직접 임시 의장을 선출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모의 정기회도 열렸다.

이দিন 학생(전주우전초)은 "나이가 어려 불안했지만 동갑내기 학생의원



전북교육청은 이달 3~5일과 10~12일 두 차례에 걸쳐 전북학생수련원에서 '2026년 제4기 도·지역 예비학생의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을 만나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강태립 학생(군산영광중)은 "여러 학생의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고 했고, 박장혁 학생(원광고)은 "모의 임시회 정기회를 통해 서로의 정책을 작성해 발표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전북학생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를

열어 제4기 학생의회를 이끌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는 경험은 교육자치의 핵심 과정"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북학생의회와 지역학생의회 간 연계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12일 전주신내체육관에서 전북대학교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열린 가운데, 신입생들이 새 출발 축하에 환호하고 있다.

##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전북대, 2026학년도 입학식·오리엔테이션 거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12일 전주신내체육관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을 환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와 단과대학 관계자, 신입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해 신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양오봉 총장의 인사로 시작된 입학식에서는 입학 대상자 6,207명(학사과정 4,769명, 석사과정 1,100명, 박사과정 338명)에 대해 입학허가가 선언됐다.

전북대는 입학식을 통해 신입생들이 대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를 되새기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진행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수강신청과 학사 운영 체계,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제도, 학생 복

지와 상담 지원,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활동, 캠퍼스 주요 시설 이용 방법 등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됐다.

각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해 실무 중심의 설명회 진행해 대학생활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다. 또한 학과(부)별 오리엔테이션과 연계 전공별 맞춤 안내가 이뤄졌고, 신입생 환영 프로그램과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운영돼 행사 분위기를 더했다.

행사에 앞서 전북대는 사전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사 당일에는 운영요원과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썼다.

양오봉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입생 여러분이 대학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며 배움과 도전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넓혀갈 수 있도록 교육과 장학, 진로 전반에 걸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북대학교가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유성동 "공문서 총량제 교육감책임제로 교권 보호"



유성동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는 12일 "공문서 총량제와 교육활동 소송 교육감책임제를 통해 본질적 교육활동과 교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직 재구조화를 통한 비례 조직 정상화 △교육정책사업 정비 및 관행적 사업 폐기 △각종 위원회 정리 △다위학교 업무표준안 마련 △학교업무지원센터 인력 보강 △교무업무지원교사·보직교사 증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문서 감축률을 기관장·부서장 평가와 성과상여금에 연계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적용 확대 등으로 교권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활동 소송 교육감책임제"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감이 초기 수사부터 소송 종료까지 법률대리인으로 적극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민원 청구 단일화, 전용 민원실 설치 등 교육부의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이행하고, 교권 보호 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 "꿈에 그리던 졸업장 받아 기뻐요"

전북교육청, 2025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서 수여식

87세 최고령 포함 성인 학습자 123명, 초등·중학 학력인정서 받아

87세 최고령을 포함한 123명의 만학도들이 감격의 학교 졸업장을 품에 안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도내 11개 문해교육 기관에서 초등(95명)·중학(28명) 3단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성인 학

습자 123명이 학력인정서를 받았다. 초등 교육을 받은 87세 할머니 등 어려서부터 배움의 끈을 잡지 못한 늦깎이들이 이번에 꿈에 그리던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것이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졸업 학력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배움에 대한 남다

른 열정으로 티의 모범이 된 학습자 24명과 문해교육 발전에 헌신한 교원 10명에게 교육감상이 수여됐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영광스러운 결실을 보신 모든 학습자분께 깊은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모든 도민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교육과정 연계한 환경교육 체계화

전북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수업자료 개발

도내 초등 교사들 대상 지역 순회 설명회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탄소중립 교육과정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도내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활용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김제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각 교육지원청 교육과정 세움주간에 운영된다.

이번에 제작한 수업자료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의 활동자료를 담았다.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의무에 따라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에너지 △자원순환 △지속가능성 등 학년군별로 5차시 분량으로 개발했다.

특히, 수업자료를 개발한 교사들이 직접 설명회 강사로 참여해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확산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탄소중립 교육과정 수업자료 활용 방법과 실천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자리"라며 "교사들의 환경교육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해 전북형 탄소중립 교육과정이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외국인 학생·주민들의 특별한 설 명절

전주가족센터, '맛있는 설날 만들기' 행사 진행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에 따뜻한 웃음과 음식 향기가 가득 퍼졌다.

전북대가족센터(센터장 단장) 운영속 교수가 운영하는 전주가족센터(센터장 이해경)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전주사자문화센터 3층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투게더 in 전주' 프로그램의 일환인 맛있는 설날 만들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갖 만든 떡국의 구수한 향과 만두를 빚는 정겨운 손길로 설날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의 대표 명절 음식인 떡국을 함께 끓이며 새해 인사를 나눴고, 중국의 전통 설 음식인 만두를 직접 빚으며 각 나라의 설 풍습과 의미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명절 음식이라는 공통의 매개를 통해 자연스러운 소통과 웃음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전주 지역의 상징성을 담은 '갓 모양 키팅 만들기' 체험도 함께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참여자들은 정성스럽게 키팅을 만들어 2026년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고, 전주의 전통과 맛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요리 체험을 넘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설날 문화를 몸소 경험하며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 참여자들 또한 중국 설 문화를 접하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다문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재훈 기자



우석대, 유학생 분실물

찾아준 경찰관에 표창 수여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등록금과 여권 등이 든 가방을 분실한 외국인 유학생을 도운 경찰관에게 총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 수여식은 12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층 총장 직무실에서 열렸으며, 박노준 총장과 김재록 덕진경찰서 이종지구대 순경 등이 참석했다.

김재록 순경은 지난달 17일, 한국 입국 입주일 만에 시내버스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라흐만 엠디 민하주르(RAHMAN MD MINHAJUR·경영학과 석사과정 1차수) 대학원생의 신고를 접수했다. 가방 안에는 등록금과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주요 서류가 들어 있었다.

한국어가 서툴러 버스 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하던 학생의 상황을 파악한 김 순경은 번역기를 활용해 의사소통을 이어갔다. 이후 하자 장소와 이동 경로를 토대로 버스를 역추적하고, 전주시 버스조각과 여러 운송회사에 수차례 연락하는 등 적극적인 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약 15시간 만에 해당 버스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김 순경은 다음 날 오전 분실물을 보관 중이던 버스 기사와 연락해 가방과 휴대전화를 모두 회수했으며, 이를 학생에게 직접 전달했다. 덕분에 라흐만 엠디 민하주르 대학원생은 등록금 납부 마감 기한을 넘지 않고 정상적으로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우석대학교는 이번 사례가 자칫 유학생의 재산 피해는 물론 학업 중단과 체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예방한 점, 그리고 한국 경찰의 책임감 있는 공공서비스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표창을 결정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21일 2027학년도 대입 대비 고3 담임교사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1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고교 진학부장 및 고3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2027학년도 대입 진학지도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연수는 대입제도 전환을 앞둔 마지막 해인 고3 학생들의 진학지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대입제도 전환을 앞둔 마지막 해인 고3 학생들의 진학지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북 대입지원프로

램 활용 안내 △2026학년도 대입 결과 분석 △2027학년도 대입 특징과 지원 전략 △고3 담임교사 진학지도 로드맵 △단위학교 맞춤형 진학지도 계획 수립 방안 등이다. 먼저 전북대입지원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조정익 교사(전주)가 강사로 나서 단위 학교 진학데이터 관리 및 상담 프로그램 활용 방안을 안내한다.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 진학지도지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